

연중 제26주일
(복자 대축일 의무행사)

기도서 P. 445 B해

제1독서(민 수 11, 25-29)
제2독서(야 고 5, 1-6)
복 음(마르 9, 37-42, 46-47)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김 봉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 칼 론

죄를 지으면

서 석 구 신부

오늘 복음 말씀에 다른 사람에게 죄짓게 하는 사람이 그 목에 연자맷들을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오히려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지나친 표현을 하셨다고 반문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묵상해보면 다른 사람에게 죄짓게 하는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용서받지 못할 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덕망과 학식과 지위와 명예를 가진 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진실을 거짓이라고 강요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한다면, 권력을 가진자가 그 권력을 남용하여 약한자를 짓누른다면, 가진자가 못가진자를 도와주기는 커녕 착취하였다면, 배운자가 못배운자를 무시했다면, 그는 분명 연자맷들을 목에 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을 죄짓게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복음에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 버리고 애꾸눈으로 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정말 무서운 요구입니다.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상의 어떠한 것도 희생할만한 결단이 있어야 하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비록 그것이 눈에는 눈이 아닐지라도 그만한 신체의 일부를 희생시키는 결단과 용기와 아픔이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일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9월은 순교 복자들을 찬양하는 달입니다. 오늘 우리는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교구의 모든 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다가 목숨을 바친 그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분들은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 이 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목숨을 바친 하늘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행동과 신앙의 용기는 한국교회를 열매 맺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한국에는 연자맷들을 목에 걸어야 할 사람과, 눈을 빼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누가 진정으로 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해 주신분이 계시기 때문에 천벌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룩한 순교복자들이여, 우리 나라를 위해 빌어주소서. 아멘

<함열천주교회 주임신부>



브름달아 두둥실...

우리는 태풍이 활취고 간 수해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가? 거기다가 백수병(白穗病)까지. 그러나 보도에 의하면 올해 목표량을 웃돌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한다.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로운 일인가. 하지만 비료를 덜 쓰고 농약은 갑절이나 써서 병해를 막았더니 껌뽀를 하기는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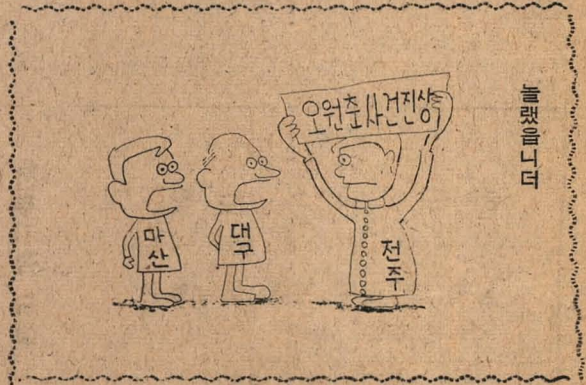
같은 날 같은 먼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추석을 10일 앞둔 24일현재 전국의 노임 체불액이 62억3천8백만원으로 집계되었다 한다. 전국 183개 업체의 3만8천5백6십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고 있다 하니, 그들 1인당 평균 16만원을 넘는 액수이다. 그중에도 제조업체가 단연 랭킹 1위로, 3만2천9백여명이 34억6천2백만원이니 1인 평균 10만5천원을 웃도는 형편이다.

제조업체라면 몇달전에 세상을 놀라게 했던 ○○, 작년에 근로자들에게 뽕물을 끼얹었다는 ○○방직 등을 일컫지 않을까? 한 때 우리의 관심을 모았지만, 지금은 흘러간 옛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업체의 불쌍하기만 한 우리의 쫓간이들이 바로 체불의 영향으로 고통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을까?

<마땅히 지급할 것을 지급하지 않고 미움>을 체불(滯拂)이라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체불업체들이 「경기후퇴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대기업중에도 고질적인 체불현상을 빚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다. 세계적인 에너지 파동때문에 겪는 진통이 있음도 인정이 간다. 그러나 고질적인 체불현상을 빚고 있는 대기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연약한 근로자들의 소리로 그들의 귀가 뚫리고 마음이 녹을 것인가? 글썽다.

이런 일들이 없다면! 왜 <도시산업 선교회>가 노동자의 인권이나 처우 문제에 관심을 갖어 「용공단체는 아니다」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것인가!

숲 정 이 산책



제4차 순교자 현양대회 기념행사 결과 발표

처음으로 갖는 그리기 대회에 많이 참가한 어린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작품의 수준은 그리 높지 못했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말씀이었어요.

글짓기나 웅변대회에 아쉬움이 있다면 “...다운(...스런)”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다운 맛 대신 어른스러움이 더 많았다는 평입니다.

상을 못받았어도 계속 노력하세요. 하느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어주실 겁니다. **—평택 사무국**

▲그리기 대회 입상자▲(317명 참가)

- 최우수상 : 홍현주(복자, 4학년)
- 우수상 : 김인정(파티마, 유치부), 원종천(둔율동, 1학년), 모운진(월명동, 2학년), 김옥주(송정이, 3학년), 오경환(정읍, 4학년), 정경수(김제, 4학년), 김영미(송정이, 6학년)
- 입선 : 김제... (유)김승미, (2)김대진, (3)최의권, (4)서장미, 정읍... (3)김방실, (5)김명, 둔율동... (1)조현희·김민아, (5)고운형, (6)김현주·안정태, 월명동... (3)최은정, (4)박진·방기선, (5)김현경, (6)강성희, 주현동... (1)권의원, (2)박현, (5)김미정, 복자... (2)박승민, 진동... (3)배성환, (4)장민호, 중앙... (1)엄연주, (2)조수진·양지현, (3)서미숙, (6)이은숙·이미숙, 파티마... (유)황세미, 고나리
- 장려상 : 김제... (2)이선희, 원경... (6)황인옥, 정읍... (1)김현·전희, (2)이수정, (3)권효철, (4)송창환, (5)권명윤, (6)김형남, 둔율동... (2)장정현, (3)원혜란, 용안... (3)송영숙, (4)남형화, 월명동... (1)김옥진·방기태, (2)방지현·함열... (6)김명순, 화산... (5)김정희, (6)김경동, 삼례(3)최명숙, (5)김정희, 황등... (유)최병숙, (5)최병국, (6)박미영, 복자... (2)유미란, (3)김남수, (6)박중화, 서학동... (2)정현희, (4)정은미, 중앙... (4)황희타, (6)문영아, 송정이... (4)정선, (6)김기근, 파티마... (유)전해연·이선우 (1)김미경

□심사위원 : 김병오(송정이 편집위원, 송정이 산책 및 요십이 담당)·임동주(해성교 교사)

▲글짓기 대회 입상자▲(78명 참가)

- 우수상 : 초등부... 신정순(화산), 중등부... 이옥(노송동), 고등부... 장순주(중앙), 일반부... 한정현(복자)
- 입선 : 초등부... 이현정(복자), 전상우(송정이), 김창용(월명동), 임정인(중앙), 중등부... 김희경(김제), 최숙경(복자), 고등부... 송애연(둔율동)

□글짓기 초등부 우수작□



순교복자

신 헤레나(정순)

지난 8월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오늘은 물놀이를 가는 날이었어요. 저는 엄마 따라 같이 가기로 했어요. “헤레나, 주일학교는 어떻게 하지?” 하시는 엄마 말씀에 나는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싫어, 나도 물놀이 같이 갈래요” 하면서 좋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침밥도 먹는데 마는등 정거장에 나가 기차를 타고 물놀이를 떠났습니다.

처음 와보는 물놀이, 정말 시원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돌아와서 나는 친구한테 갔지요. “교리시험 본다고 했는데 시험 보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다행히 시험은 보지 않았어요.

그뒤 나는 복자들에 대하여 쓴 책을 읽게되었어요. 그 중에서 순교복자 유 베드루를 읽을 때에는 눈물이 나올려고 했어요. 베드루는 우리와 같은 나이 어린 소년인데도, 한 분이신 아버지를 믿는다고 살이터져 피가 나도록 땀겨 써이나 매를 맞고도, 그래도 천주교를 배교하지 않았거든요. 나중에는 목졸려 죽기까지 했어요. 우리들은, 유 베드로처럼 성당에 못가게 때리지도 않는데, T.V 보느라고 친구들과 노느라고 성당에 가지도 않고 주일학교에도 잘 가지 않습니다.

처 하느나라에서 베드루가 내려다 보면서 무어라고 할까요? 그뿐만 아니에요. 나는 엄마가 청소하라면 동생한테 시키기만 하고, 친구들과는 싸움도 잘하고, 길에서 불쌍한 사람을 보았을 때는 한번도 도와준 일이 없거든요.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친구들과 싸우지 않는 사람이 하느님 말씀을 잘 듣는거지요.

물놀이는 재미있었지만, 주일학교에 빠져가면서 간 게 매맞고 순교한 유 베드루를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나는 순교복자 유 베드루를 생각하면서 앞으로라도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화산천주교회 주일학교)

일반부... 박기준(복자), 양기완(팔마)

□심사위원 : 이운용(시인, 성심여중 교사), 이승현(시인) ▲웅변대회 입상자▲(각지구 대표 26명 참가)

□우수상 : 초등부... 홍은기(오룡동), 중등부... 문창준(둔율동), 고등부... 송명준(둔율동), 일반부... 김미나(월명동)

□입선 : 초등부... 유택(김제), 홍성국(둔율동), 권석범(함열), 중등부... 유명규(복자), 정미정(창인동), 일반부... 조상호(둔율동), 전경숙(함열), 박기준(복자)

□심사위원 : 김진소 신부, 김낙완(성심여교 교사)

소비자 보호협회의 금상 획득!

한국 온수 보일러

난방·연탄보일러·기름보일러·공해방지

한국 流 온수 온돌 호남총판

이리 ㉠ 8629 ㉡ 4415 군산 ㉢ 1322

도 지정 40호 설비사

전주지점 모집



순수자연식품 청정 크로레라

CHLORELLA-ONE

크로레라 一 元

이서구(토마스 아퀴나스)

전주시 덕진동 덕진공원 앞 3-9519
전주시 고사동 시민치과 앞 3-7898

변호사 반대신문에

검사 눈치보며 답변한 오원춘



“...공개재판이란, 재판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장소가 허락하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하며 그 진위가 가려질 수 있도록 공개석상에서 이루어져서 재판의 참다운 의의인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차 공판과는 달리 이번 공판에서는 질서를 위한다는 명목아래 갑자기 방청권이 발부되므로써 사실상이 재판의 진행을 듣고 봐야 할 관계되는 전국의 많은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그리고 농민회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사람들이 (관(官)에서 동원된 사람들이었다)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이문명 변호사의 진행말인 중에서)

결국 법정에 들어오지 못했던 500여명의 신부, 수녀 그리고 신자들은 성가와 기도를 하면서 올바른 공개재판을 요구했지만, 신성해야 되고, 신성하다는 법정에 기동경찰이 투입되어 강제로 쫓겨나게 되고 말았다.

1시간 가량의 휴정후에 속개된 재판의 과정은 변호인단측이 제1차 공판에서 있었던 검사측의 심문 내용의 모순점과 억지를 지적하고, 이런 모순과 사실과의 다른점을 지적할 수 있는 자료만은 하루가 다 걸릴것임을 주지시키면서 충분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요구했다. 그 한 예로 3층 기관실 문에 다쳤다는 검찰측의 주장의 모순과, 지난 2월 8일 오원춘씨의 행방 내용으로 당일 다방에서 지냈다는 검사측의 1차 심문내용에 대해서 사실 그날 오원춘씨는 감자피해조사를 위해 전종대씨와 가정방문을 하던 날이었음을 지적-검찰측 주장의 조작성을 예리하게 반증했고, 이어 검사측의 보충심문이 있는 뒤 양측의 증거인이 채택됐으며 10월8일의 3회 공판을 선언한 뒤 끝이 났다.

한편, 재판이 속개되는 중에 법정밖에서는 문규현신부 외에 대구교구 허신부와 수녀 5명, 그리고 농민회원 8명이 기동경찰에 강제로 연행되었다. 아직도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법정밖에서 합성과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강제연행됐음을 알고 교구 사제단과 타교구 신부님, 수녀님, 농민회원등 100여명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정당한 이유없이 연행한 사실을 항의했지만 오후 7시30분에 풀어주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이튿날 새벽 2시경에야 신부와 수녀만 풀려났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까지 석방하라는 우리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3시경에 신부, 수녀, 그리고 농민회원들을 짐승다루듯 경찰차에 끌어넣기 시작했다. 신부님들은 물론이지만 수녀님들을 억센 힘으로 마구 붙잡고 밀어서 강제로 하타마 병원에 있는 분도수녀원 마당에 내버놓고 말았다. 그러나 경찰의 차 앞에서 형제들을 다 내놓도록 요구를 하며 성가와 기도로 대치한 경찰들에게 항거했다.

그러나 결국 신부, 수녀외에 연행되었던 7명의 농민회원은 5일간의 구류처분을 받게 되고 말았다. (9. 27일자 조천일보)※ 농민회 전국회장 최병욱씨만 유보형태(27일현재)

왜들 이러는가? 무엇이 두려워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는가? 진실이 들어날까봐 기동경찰의 힘으로 무자비하게 입을 막으려는 저들의 소행의 저의는 오히려 이번 사건이 조작된 것임을 더욱 더 확실하게 입증해주는 것이었다.

요심이 (322) 김병오

내가 무얼 물으면 너는 무조건 예 라고 대답해!

예

이 쪽지는 장난으로 썼지?

예

설탕맛은 짜지?

예

예 소리를 잘하니 이젠 안심이다

예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선사합니다□
송옥의상실
최준자(로사리아)
(이시계점 옆)
전화 ⑥ 6219

교우님들의 건강관리 상담 세종당한약방

김 남 수(벨라도)
전주시 풍남동 3가 35의9
(은행나무 사거리)
전화 ⑥ 2277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MCGREGOR



맥그리거
삼성물산전주매리점
※성인·아동용의류
전주시 중앙동 3가
삼화약국 옆
전화 ⑥ 4451번
유리기가산

*교우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시보당 금방

(금·은·보석·각국 시계)
주 이 창 수(바오로)
전주 남문 옆
전화 ⑥ 8188 (자 ⑥0369)

표구, 서화, 병풍, 수예, 방석, 보료

문화양행

오 중 원(아오스팅)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⑥3170
☆교우님들 자주 들리세요

□픽업차로 신속배달, 가정방문으로
점검, 교우님들 자주 찾아주세요

신진프로판까스상사

대표 최 안드레아
전주시 진북동 천변도로
전화 ⑥ 5448 · ⑥ 1071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제 4차 순교자 현양대회...오늘 오전 10시, 전주 실내체육관
2. 푸르실로 전국 울드레아...10월 9일<화>, 인천에서, 참가비...7천원(회비와 교통비)
 - ① 참가 희망자는 교구 사무국(주간: 김영진, 중주: 최남수)에 문의 바람...오늘 중으로
 - ② 버스 2대 준비(1대...이리·군산지구 40명, 1대...전주·기타지구 40명)
3. 가톨릭센터 야간학교 학생모집...9월 10일~10월 6일까지, 가톨릭센터 사무실

모집대상: 중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싶은 소년,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명함판사진, 입학원서
4. 4지구 모지 관리규정 변경사항...10월 1일부터

제6조-모지사용료 1만원(이장은 배액 2만원), 제10조-매장작업비 1구당 1만5천원으로 인상 변경되었음
5. 제 6 지구 본당 친목 체육대회...10월 1일<월> 오전 10시~오후 4시, 장계천주교회
6. 베델 성서 연구 모임, 10월 2일<화>로 연기...10월 1일<월>은 연후관계로 2일로 변경함
 - 절의평화 성금...중앙 익명 1만원, 부자 김복수 1만원, 월명동 익명 2천원, 여산 성도회 1만원, 문물동 조요셀 1십만원, 김기남 2천원, 익명 1만3천원, 수유본당 77,150원
 - 수재민을 위한 성금...대야(19,000원), 둔율동(40,000원), 용안(12,000원)의류 6상자, 상관(15,900원), 입실(12,050원), 해성중학교(31,400원), 화산(21,000원), 부자(68,940), 중앙(100,000), 전북동(20,500)
 - 밀린 숲정이 대금이 무려 156만원이나 돼 출판사의 어려움이 큼니다. 9월 말까지 도와주세요

(중앙)

주임 신부 서 용 복
 보좌 신부 왕 수 해
 보좌 신부 정 태 협
 사도 회장 이 복 석

전화 ③3651
 ③3874

7. 주일학교: 매주일 오후 2시, 미사 3시
 빠짐없이 보내주세요
 10월 1일<월> 주일학교 체육대회 해성교에서
 응원과 협조바랍니다
- 지난주 불헌금: 248,225원

1. 순교자 현양대회: 30일<일> 오전 10시
 장소: 전주 실내체육관
 2. 추석합동 위령미사: 5일<금>
 미사: 오전 6시, 오전 10시30분, 저녁 8시
 ※ 교회 공동모지에서 오전 10시미사도 있음
 3. 성령세미나: 8일<월>~13일<토>까지
 장소: 강당, 시간: 저녁 8시~10시
 4. 토사리오 성월: 평일미사 후에 묵주의 기도 있음
- 지난주 불헌금: 264,166원

(서학동)

주임 신부 오 현 택
 사도 회장 황 인 구

전화 ②2276

1. 첫 영성체식 및 사도회: 다음주
 2. 추석미사 안내: ① 합동연미사(모지 10시), ② 본당미사 오전 6시, ③ 저녁미사 없음
 3. 첫 영성체자 마지막교리: 6일 오후 3시
 4. 견진자 신청 바람: 10월 7일까지
 5. 합동미사 예물봉투 빠짐분 가져가시기 바람
- 지난주 불헌금: 85,540원

(노송동)

주임 신부 김 정 원
 보좌 신부 나 중 열
 사도 회장 김 성 록

전화 ③7032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저녁미사 후
 2. 재속형제회 월례회: 내일 오전 10시로 연기합니다.
 순교자 현양대회 관계로 연기하오니, 착오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3. 추석합동 위령미사 불헌: 10월 5일은 중추절입니다
 먼저가신 선영들을 위해서, 한가정도 빠짐없이 정성껏 봉헌합니다
 4. 교무금 납부의 날: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당신의 교무금 납부현황은 어떠합니까?
 5. 축! 혼인미사 안내
 오늘, 오전 11시: 신랑-이현호(이나시오)군
 신부-국향자
- 오늘, 12시: 신랑-이명중(노련조)군, 신부-손춘식
- 지난주 불헌금: 108,780원

(숲정이)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이 갈 노

전화 ③7366

1. 주일학교 후원회: 10월 2일 오후 2시
 자모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 바람
 2. 추석합동 위령미사: 10월 5일 오전 10시 교회공동모재
 본당미사는 아침-저녁 주일과 같습니다
 3. 10월 6일 누갈다 부녀회: 월례회
 4. 사도회 월례회: 10월 7일 군인주일 헌금 모금합니다
 5. 순교자 현양대회: 오전 10시 실내체육관
 6. 지난주간 신축기금 내주신분
 장의선(40,000원), 노기환(10,000원)
 7. 유아세례: 10월 7일
- 지난주 불헌금: 133,230원

(덕진)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전 종 복
 사도 회장 유 제 석

전화 ③2182

1. 본당 2주년 축성식 행사: 10월 3일 오전 9시미사후
 (경기 및 행사)
 2. 사도회 임시총회 소집일: 10월 14일 미사후
 교무님, 구역장, 공소회장, 반장, 임원님 꼭 참석하
 세요
 3. 본당 견진성사일: 10월 7일 오전 10시
 대상자는 대부분모지 모시고 9시30분까지 준비 바람
 4. 추석합동 위령미사: 10월 5일, 오전 5시30분·저녁
 8시 한가정도 빠짐없이 미사 봉헌합니다
 5. 어린이 체육대회: 10월 1일 해성학교에서
 부모님들의 협조와 응원을 바랍니다
 6. 미사후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 지난주 불헌금: 25,320원 교무금: 141,000원

(전동)

주임 신부 김 병 엽
 보좌 신부 김 기 수
 사도 회장 유 제 석

전화 ②3222

- ※ 축! 순교자 현양대회
1. 중·고학생 회식(비둘기) 원고마감: 30일까지
 (많은 원고 바랍니다)
 2. 주일학교 체육대회: 10월 1일 오전 8시30분
 장소: 해성중·고 운동장
 많은 자모님들 오시기 바랍니다
 3. 교도소: 10월 4일 오후 1시반
 ※ 형제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4. 추석(10월 5일) 미사시간
 아침 5시반, 저녁 7시반
 선영을 위해 우리의 정성과 예물을 봉헌합니다
 (봉헌봉투 사무실에 있음)
 5. 모지미사(주교님): 오전 10시
- 지난주 불헌금: 272,775원

(복자)

주임 신부 김 중 택
 보좌 신부 박 성 호
 사도 회장 조 성 호

전화 ②5238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추석합동 위령미사: 10월 5일 10시 교회모지에서
 본당미사 저녁 7시
3. 첫월례 7: 10월 6일<토>
4. 축! 영세: 영세하신 21명에게 축하의 기도드립니다
5. 축! 견진: 88명 축하합니다
6. 불헌금 미수 정리바랍니다

(파티마)

주임신부 김 영 일
 사도회장 채 수 현

전화 ②0915

1. 성지순례: 10월 9일 미리미 및 절두산
 희망자는 회비 5,000원을 사무실로 내주시고 당일
 점심은 각자 준비하세요(선착순 40명)
 2. 추석 합동미사: 10월 5일(추석) 아침 7시-본당에서
 오전 10시-천주교 모지에서
 위령미사 예물은 가급적 4일 저녁까지사무실로 접수
- 지난주 불헌금: 57,240원